

**<도불60주년기념 이응노·박인경展> 학술심포지움**  
**《이응노와 한국미술》**

이응노의집[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] <도불60주년기념 이응노 박인경전>의 부대행사로 오는 5월 4일 《이응노와 한국미술》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열거자 합니다.

이 행사는 이응노 예술의 보다 근원을 알고자하는 우리들의 갈망과 ‘한국미술’의 비전에 대한 우리들의 갈증이 매우 긴밀히 결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로부터 출발했습니다.

제1발제(발제자:김학량)는 식민지 시기 근대화단에서의 ‘기린아들’인 이응노와 동세대 예술가들에게서의 ‘추상’ 문제를 교차 검토해보는 발표가 될 것이고, 제2발제(발제자: 마엘 벨렉 Mael Bellec(Musée Cernuschi 세르누쉬미술관 학예연구사)는 ‘프랑스의 이응노’를 ‘프랑스에서의 이응노’로부터 빼내오는, 그래서 그것이 ‘한국의 이응노’에 대한 거울상으로 비춰 내보이게 될 것입니다.

그리고 제3발제(발제자:문정희)는 ‘아시아의 모더니즘과 이응노’를 주제어 삼아, 동양 서양 이분법을 넘어 국경 없는 곳에 마련되고야마는 예술가의 진정한 터전을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.

이로써 우리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그간의 고암 이응노에 관한 ‘미술사적 틀 속의 이응노’ 연구를 넘어, 척박했기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있던 시기를 살았던 그의 신념과 행동을 주목하는 ‘역사적 실존으로서의 이응노’ 연구의 물꼬가 트이기를 또한 기대합니다.

## 행사 개요

- ▶ 일 시 : 2019. 5. 4(토)
- ▶ 장 소 : 이응노의집[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]

인사말: 김학량(이응노의집 명예관장)

토론회 좌장: 성완경(인하대학교 명예교수, 미술평론가)

제1주제 :

- 발제자 : 김학량(이응노의집 명예관장, 동덕여대 교수),  
<식민지 시기 화가들에게서의 '추상' 문제>
- 토론자 : 권영진

제2주제 :

- 발제자 : 마엘 벨렉 Mael Bellec(Musée Cernuschi 세르누쉬미술관 학예연구사)  
<프랑스의 이응노>
- 토론자 : 이지호(전 이응노미술관장)

제3주제 :

- 발제자 : 문정희(國立臺南藝術大學 국립타이난예술대학 부교수),  
<아시아 모더니즘과 이응노>
- 토론자 :

<질의 응답 및 토론 마당>

<전시관람 및 폐회>